

경기지표 심상치 않아...금리동결 유력

생산·투자·고용 등 경기지표 곳곳서 부진 다음 금리인상 시점 7~10월 전망 엇갈려 5월 금통위, 금리인상 소수의견 여부 관전

심상치않은 경기 지표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한은이 당장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월 금리인상론'은 힘을 잃은 모습이다. '고용 쇼크'가 이어지며 국내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22일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한은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11일 채권시장 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이뤄진 조사(89.0%) 때 보다 동결 전망이 높아진 것이다.

불과 2~3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5월 소수의견 등장·7월 금리인

상' 가능성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였다. 특히 임지원 신임 금통위원의 선임으로 7월 금리인상론은 더욱 힘을 받았다. 지난 4월 임 위원이 IP모건 이코노미스트로 지낸 당시 보고서에서 한은의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이 커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감 등도 조기 금리인상론을 지지했다.

하지만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한은이 선불리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26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70.3%)은 전월에 비해 1.8%p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인 2009년 3월(69.9%) 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전월대비 7.8%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대 중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고용쇼크'에 휩싸이면서 '경기 침체론'까지 불거졌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86만18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3000명 증가에 그쳐 석달째 10만 명대 증가폭에 그쳤다. 실업률은 4.1%로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점도 금리인상 지원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임 위원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간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고용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짚고도 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뿐 아니라 고용, 투자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 둔화가 장기화되면 그나마 회복되는 듯 보였던 소비도 둔화될 수 있다"며 "한은이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최근 여건을 감안해 7월 경기 판단에서 톤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초 시장의 예측대로 5월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고, 7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모멘텀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미 금리역전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이 한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도.

반면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8월이나 10월로 금리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산업부, 산단 환경 조성 등에 추경 3526억원 투입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위기 지역을 위한 조선업·자동차 재취업 지원에도 12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업종과 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해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안 3526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산업부 소관 산업 20개가 포함됐다. 사업별로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원과 산업단지 중소기업창업지원 488억원,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 8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산업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바꾸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통여건이 불편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매일 교통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삭감됐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약 127억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370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300억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06억원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편성된 추경예산은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른더위에 에어컨 매출 ↑

최근 지속된 습한 날씨와 이른 더위로 제습기와 에어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2일 가격비교 사이트 '에너지 가격 비교'에 따르면 습한 날씨가 계속된 지난 16~17일 제습기 매출은 5월 평균 매출(1~15일)대비 643%(7.4배), 판매수는 634%(7.3배) 급상승했다. 에너지 측은 제습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요가 증가해 7월에 집중 판매되지만, 최근 갑작스런 폭우와 함께 기온이 높아지면서 제습기 판매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른 더위로 인해 에어컨 판매 시점이 앞당겨지기도 했다. 티몬에 따르면 올해 에어컨 판매량 상승 시점은 2월로 앞당겨졌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에어컨을 구매하면 설치까지 한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 에어컨 판매 상승 시점이 매년 앞당겨지고 있는 점 등이 맞물렸다. 티몬은 2015년, 2016년에는 4월부터 에어컨 판매량이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시점이 3월로 당겨졌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2월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546% 증가했고, 3월에도 동기간 257% 상승했다. /뉴시스

구분부 LG 회장 별세... 구광모 상무, 마지막 배웅 유족과 LG 임원 등 100여명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 거행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구분부 LG 회장을 모신 관이 운구차에 오르자 유족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구 회장의 마지막 길에 배웅을 나선 유족과 범 LG가 인사, LG그룹 부회장단 등 100여명의 사람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20일 세상을 떠난 구 회장의 발인이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2일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구 회장을 배웅했다.

이날 영정은 구 회장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들었다.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와 형제인 구분준 (주)LG 부회장, 구분능 회성그룹 회장, 구분식 회성그룹 부회장이 뒤를 따랐다.

상주인 구 상무는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동생 구연경씨, 구연수씨와 빈소를 지키며 외빈을 맞이했다.

운구를 맡은 이들은 과거 구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들이었다. 이들은 구 회장을 마지막까지 수행하며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모셨다.

운구차에는 구 상무와 사위 윤 대표가 탑승했다. 구 회장을 모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구 구분부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뉴시스

차가 출발하자 가족들도 일제히 장지로 향했다. 장지는 고인이 평소 즐겨 찾았던 경기도 곤지암 인근 지역이다. 구 회장의 유해는 화장된 뒤 '수목장'으로 치유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르기를 원했지만, 재계의 거목이었던 고인을 추모하는 인사들의 발길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뉴시스

매일유업, 간식치즈 '상하치즈 미니' 출시

매일유업의 치즈 전문 브랜드 상하치즈는 온 가족이 매일 즐겨 먹을 수 있는 '상하치즈 미니(Mini)' 3종을 선보였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상하치즈 Mini는 소비자들이 치즈를 일상에서 더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보인 제품이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체다, 크림치즈, 모짜렐라를 중심으로 짜지 않은 달콤한 맛에, 먹기 좋은 크기로 개별 포장했다.

제품 종류는 '칼슘체다', '크림치즈', '스모크 모짜렐라' 3종이다. 칼슘체다는 한 조각에 우유 반 잔(100ml)에 해당하는 칼슘 150mg을 그대로 담았다. 스모크 모짜렐라는 모짜렐라와 스모크 치즈가 어우러졌다.

매일유업은 '상하치즈 Mini' 출시를 기념해 매일브랜드 사이트에서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오는 29일까지 진



매일유업의 치즈 전문 브랜드 상하치즈가 '상하치즈 미니(Mini)' 3종을 선보였다. /뉴시스

모바일 액션 RPG '블레이드2' 사전예약 100만명 돌파

글로벌 멀티플랫폼 게임 기업 카카오게임즈에서 올 여름 출시 예정인 모바일 액션 RPG 대작 '블레이드2 for kakao'의 사전 예약자 수가 21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블레이드2'는 2014년 모바일 게임 최초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거머쥔 '블레이드 for kakao'의 후속작이다. 전작의 명성에 힘입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이 게임은 지난 15일 사전 예약 시작 당일에만 20만 명,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예약자를 모으며 기대작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블레이드2'의 성공적인 출시를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갈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마련한 8부작 브랜드 웹툰은 지난 17일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이후 높은 평점을 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전 예약은 카카오 내 카카오게임 사전 예약 페이지와 구글 플레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게임 예약자 전원에게 '고급 캐릭터 장비'와 '보석(재화) 500개' 및 특별 제작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을 증정한다. 구글 플레이에서 예약하면 '5만 골드'를 별도로 제공한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